

# 제10회 육용종계 경영자 세미나



본고는 지난 2월14일부터 15일까지 마니육종 주최로 웨라  
돈워커히호텔에서 열렸던 행사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註—

## ● 육용종계 주요 사양관리

### 1. 체중조절을 위한 절식법

육성말기 일시에 6~10일 정도 절식시켜 종계의 체중을 권장치로 조절하기 위한 편법으로 절식법을 응용할 가치가 있다. 절식을 시키면 체중이 감량되어 산란이 약간 늦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사료비가 절감되고 초산 난중이 짧아지며 성성숙이 균일해져 산란피크가 높아지고 탈항으로 인한 폐사의 감소 등 경제적 이점도 많다.

#### 1) 어떤 계군에 실시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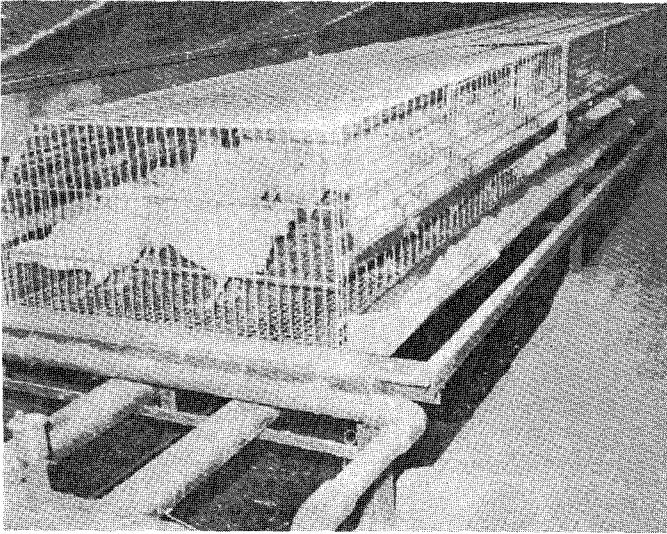
육성기에 꾸준히 제한급이를 하여 체중조절을 잘 실시해야 산란·수정능력이 좋아진다. 대부분

종계장이 바람직한 제한급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육성기에 부적절한 제한급이로 인해서 체중조절이 잘되지 못해 체중이 표준을 초과한 계군에 대해선 편법이긴 하지만 육성말기에 절식시켜서라도 제한급이 효과를 얻는 것이 좋다.

#### 2) 실시 방법은?

계군의 체중측정이 정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군 전체가 아니고 체중이 초과된 개체만 골라 부분적으로 한다. 절식일령은 19~20주령이 좋다.

절식기간은 환경을 고려하여 5~9일 정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점등을 하지 않으면 절식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 2. 성성숙일령의 관리

초산을 너무 빨리 또는 늦게 시켜도 이익이 적어진다. 초산이 너무 빠르면 미성숙의 조화를 이루어 일치되는 조건에서는 조금 빨라도 별 문제 없이 수익이 증가하나 대개는 초산이 빠른 경우 성성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반대로 초산이 늦어지면 늦어진 일수 만큼 종란이 감소하고 산란피크도 감소한다고 시험되었다.

성성숙일령을 조절하는 방법은 점등의 조절과 육성기 사료급이조절로 가능하다. 그런데 효과적 시행은 두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 3. 26~38주령 사이의 사료급여

마니커종계의 정상적인 관리하에서는 26주령에 헨데이 산란 35% 수준에 이르며, 빠르면 31주령에 늦으면 34주령에 83~86%의 피크 산란율을 보이고, 37~38주령쯤에 8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산란양상이다.

26주령쯤부터는 계군의 산란증가 속도에 맞추어 급여량을 늘려가도록 한다. 이 방법을 차례치 피딩이라고 하는데 80% 이상 산란이 증가하다가 정지상태를 보이는 계군에 대해 1일 4~5g증량하고, 3~4일간 산란율을 관찰하여 변화가 없으면

원위치 한다.

## 4. 종란의 위생관리와 보관

- 1) 종란은 산란 즉시 건조
- 2) 집란은 자주
- 3) 훈증소독
- 4) 보관기간 최소화
- 5) 보관실 온·습도 적절
- 6) 입란전 예열

## 5. 수정율 향상을 위한 관리

- 1) 닭의 연령
- 2) 암탉은 물론 수탉에도 성성숙을 위해 일정한 일조시간 필요
- 3) 수탉의 정액생산은 온도에 영향
- 4) 비육이 된 닭에서 문제 발생
- 5) 수탉은 단사가 좋다.
- 6) 영양이 영향을 미친다.
- 7) 약물로 인한 수정율 저하(예 : 항생제)
- 8) 정액채취 빈도에 의한 영향
- 9) 채취정액의 청결문제
- 10) 채취정액의 취급
- 11) 정액주입량과 간격
- 12) 정액주입시간
- 13) 계사의 환기상태
- 14) 수정기법

## 6. 종계의 강제환우

난계대성 질병의 보균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 무증상 감염을 일으켜 보균화하는 경향이 높다.

## 7. 단계별 폐사 원인 분석

- 1) 수란관 내에서의 폐사
- 2) 입란일부터 6일사이
- 3) 입란 7일부터 6일사이
- 4) 입란 15일부터 21일사이

참고 : 제10회 마니육종 종계경영자 세미나. 김호섭

## ● 종계장 시설 및 기계·기구의 개선 방향

기계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고 불가항력적인 큰 힘을 낼 수 있으며, 다루기가 손쉽지 않거나 불편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종계장의 케이지 사육에서 인공수정은 기존 평사사육의 자연교배에 비교할 때 수정율의 향상과 불필요한 수태 사육을 줄일 수 있는 등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종계업이나 부화업을 영위하는데 어찌면 내부적인 고난속에 성장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전면적인 축산물 수입개방에 의한 외부와의 경쟁시기가 온 것이다.

### \* 근래 농장 관리인 채용상의 변화

- 1) 학력이 낮아지고 있다(120명중 국졸이하 56.5%).
- 2) 남자 구하기가 어렵고 구한다 해도 노동질(質)이 낮다.
- 3) 관리자를 여자로 대치
- 4) 남·녀 모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18~25세, 35세~45세).
- 5) 노동법에 명시된 8시간 작업을 고수한다.
- 6) 이직율이 대단히 높다.
- 7) 복지후생시설 및 개선을 주장

### \* 계사에서 기계화와 자동화의 대상

- 1) 육추·육성의 난방시설
- 2) 급이시설
- 3) 급수시설
- 4) 제분시설
- 5) 집란시설
- 6) 환기시설
- 7) 계사내 점·소등 장치
- 8) 선란
- 9) 계분처리기

### \* 기계화에 따른 적응과 자세

신축되는 계사에서 기계화는 오히려 쉬운 경우가 되겠지만 기존 계사에 기계화시설은 선행될 사항이 몇가지 있다.

- 1) 계사의 길이·폭·높이
- 2) 케이지에 부착된 급이기 급수기 규격
- 3) 건물 자체가 기계 설치시 견고성 여부(바닥, 기둥)
- 4) 환기시설, 점등시설에 저축 여부
- 5) 케이지 시설의 균형유지
- 이닛플부착시 계사내 온도, 물의 질, 수압 체크
- 7) 전압·전기용량 적정유지

### \* 케이지 시설의 장점

- ① 점종과 투약 용이
- ② 오란발생이 적다
- ③ 정확한 제한급이
- ④ 폭시듬 피해 예방
- ⑤ 약추발생이 적다
- ⑥ 수정율의 향상
- ⑦ 수용수수를 최소 10% 증가 가능
- ⑧ 암사방지
- ⑨ 깔짚 불필요
- ⑩ 먼지 발생이 적다.

기존 형태의 케이지에 비해 보급형 케이지에서는 고질적인 호흡기 질병을 최소화하여 약품소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관리가 용이하고 개체를 튼튼하게 하며 균일성있게 육성이 가능하다. 반면에 계사당 수용면적이 넓어지고 수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건축비와 시설비의 증대, 계사 가동율이 떨어지고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백신접종 작업이 육성농장에 집중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철저한 방역을 고려한 시설이라면 육추와 육성 농장을 격리시키는 방법이 더욱 바람직스러운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 제10회 마니육종 종계경영자 세미나.  
홍광표